

투데이

선거법 걸릴라... 움츠러든 세밀 온정

지자체·지역단체 이웃돕기 행사 중단 봉사활동 등 대다수 20일 이후로 연기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연말과 대선이 겹치는 바람에 자치단체와 각종 단체들의 이웃돕기 행사까지 움츠러 들어 생활 현안이 어려운 서민들이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지역단체와 주민자치회도 연말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와 주민자치회는 선거기간 행사나 모임이 제한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광주새마을협의회는 각 협의회별로 진행되는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미리 진행하고, 매년 11월 중순 치러왔던 국민독서경진대회를 12월 말로 연기했다. 또 연말 정례행사인 회원대회도 선거 뒤인 21일 실시할 예정이다.

눈에 띈다. 바르게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는 예년과 달리 연말에 기획한 캠페인 등을 모두 마친 상태다. 선관위의 권고도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행사는 자제하자"는 협회 방침 때문이다.

기부행위 등을 통한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이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때문인지 세밀 온정도 예년만 못하다는 평이다. 장기 불황에도 연말이면 개인 및 단체가 전달한 성품이 구청이나 복지관 등에는 몰렸는데 올해는 선거가 겹쳐서인지 더욱 뜸해졌다.

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좋은 일 하면서도 법에 걸릴까 눈치를 바느질하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선거법 저촉 관련 문의를 하는 기부자들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일반인

들도 연말 송년회를 겸하는 동창회, 향우회 등을 선거 이후로 늦춰 잡고 있다. 기업에서도 연말이면 조금 서둘러 잡던 송년회나 연수회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

광주의 호텔과 음식점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예약률이 30~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송년회 등을 미리 띄워 잡아 12월 초순 예약이 많았는데 올해는 예약 건수가 줄었고, 선거일 후인 20일 이후로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인선 광주시선관위 홍보과장은 "연말이라고 선거법 적용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이웃돕기나 자선행사, 동창회도 정치적 이용 여부를 살핀 후 대부분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2012 성공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시상식에 참석한 김효승 광주 동구청장 권한대행, 김종성 완도군수, 김여승 광주일보 사장, 정중해 보성군수, 이명흠 장흥군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 선정 '성공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 시상

광주일보는 11일 금남로 무등빌딩 16층 본사 회의실에서 '2012 성공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열고 광주·전남 대표 최우수 축제제로 선정된 ▲광주 동구 충장축제 ▲보성 다향제 녹차대축제 ▲완도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장흥 정남진물축제 (이상 가나다 순)를 개최한 자치단체 장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200여명에 이르는 광주·전남지역내 축제 중 7개 축제를 선정한 뒤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7개 축제의 사례발표와 자료심사를 바탕으로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와 축제 운영의 적절성, 축제의 발전성, 축제의 성과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했다.

반영시켜 객관성을 높였다. 한편 광주일보는 지난해 13일과 14일 광주라마다호텔에서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축제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송태갑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을 비롯한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원소장, 나경수 전남대 교수, 송진희 호남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 '2012 성공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관전기사 11면〉 이번 최우수 축제 선발은 1차로

또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축제 담당 공무원의 선호도 조사점수를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한파에 전력 비상...전력수급 위기 경보

김총리 "전력 수급 안정 위해 역량 다해야"

11일 한파에 전력수요량이 급증해 전력 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전 8시23분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kW 미만으로 하락해 전력경보 '준비(400만kW 이상 500만 kW 미만)' 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력 수요가 줄지 않아 곧 순간 예비전력이 350만kW 미만으로 떨어졌고 오전 8시36분에 전력경보 '관심(300만kW 이상 400만kW 미만)'을 발령했다.

전력 당국은 '주의(200만kW 이상 300만kW 미만)' 경보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관리(200만kW), 구역전기사업자 공급확대(45만kW), 전압조정(100만kW) 등 비상대책을 통해 예비전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오전 9시14분 현재 예비전력은 397만kW에 머물고 있다. 전력 당국은 주야나 경제(100만kW 이상 200만kW 미만) 단계를 대비해 석탄 화력발전소의 출력도 시범적으로 늘리고 있다.

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서울 최고 기온이 계속 영하에 머물러 난방용 전력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주의 경보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절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인 한파와 함께 전력수급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력수급은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원전 재가동, 수급관리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성차밭 빛 축제도 절전운동 동참

LED 경관조명으로 전력 소모량 7분의 1 '똥'

'전력 비상' 속에 보성녹차밭의 세계 최대 규모 트리도 모든 전구를 LED로 바꿔 절전운동에 동참한다.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14일 저녁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27일까지 최현명 영천리 일원에서 겨울철

남도 대표축제인 '보성차밭 빛 축제'를 연다. 10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서는 보성차밭 능선에 가로 200m, 세로 300m의 대형 연하장을 형상화해 빛의 거리, 소원탑, 산책로, 소원나무, 모바일(mobile) 등 불거리와 체험거리

를 마련했다. 대형 연하장은 빛 축제 대표 조형물로서 비닐, 차광막, 파이프, 조명 등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미술의 회화성과 조명을 접목한 새로운 연출을 시도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LED를 이용한 경관조명을 설치해 예년과 비교하면 7분의1 수준으로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였다"며 "연말인시 한 해를 돌아보고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전력 당국은 '주의(200만kW 이상

/보성=김용백기자 kyb@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3·4호기도 위조 부품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3·4호기에도 시험을 거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부품 민간 합동조사단의 점검 결과 신고리 3·4호기의 비안전등급 설비인 소화수 펌프용 제어패널의 내진시험 성

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품은 원전 주요 장치에 해당하는 '안전등급' 설비는 아니지만 화재시 소화수 펌프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장치로, 지진 등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진 시험을 거쳐야 한다.

18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광주·전남 264만8886명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수가 264만8886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광주·전남 전체 인구수 대비 78.3%이며, 지난 제19대 총선 선거인수 263만4763명 대비 1만1213명이 증가한 숫자다. 성별로는 남자 129만7393명, 여자 134만8493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만1100명 많았으며, 광주지역에서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북구 34만4476명, 가장 적은 지역은 동구 8만8679명이다. 또 전남지역에서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여수시 23만240명, 가장 적은 지역은 구례군으로 2만2917명이다.

정부, 성범죄 교사 징계시효 3년→5년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징계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재는 성폭력

범죄라고만 규정돼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을 경우 관찰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공포 안도 처리했다.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운명철학

人間的 김홍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필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기 제대로 못먹고, 신용하는 노후인생과 빈명들은 정령 노력을 안에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과 운은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속명판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광역시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곰탕의 참맛
정성을 다하여 우려낸 육수
정갈한 밑반찬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진짜곰탕 (대형 주차장 완비)
소채원 소채원 주차장 오시는 길
진짜곰탕 담당 남면 소재원 주차장 70m전방 무회선

제8회 모범시민·단체대상 수상자 공모

(개인·단체 : 질서·친절·청결부문)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질서·친절·청결부문에 공로가 크신 개인과 단체를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다 음 -

- 접수마감 : 2012년 12월 15일(토) 오후 5시까지
- 접수처 :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사무실
- 구비서류 및 양식 : http://www.gjngo.kr//커뮤니티 게시판 공지사항
- 기타문의 : 062-227-0402, 010-2627-4702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